

美 증시 약세에도 코스피 2600선 회복... 환율 안정세 영향

ASML社 어닝쇼크에 반도체株 조정 하락 전망에도 코스피 상승 출발

환율, 이틀 새 30원 가까이 떨어져 外人 現·선물 순매수 유입도 긍정적

중동 정세 불안으로 고환율·고유가·고금리, '3고(高)'가 지속되면서 하락하던 국내 증시가 닷새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간밤 뉴욕 증시가 약세를 보였지만, 코스피는 분위기가 반전되면서 약 2%대 상승에 성공했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4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2700선에서 2500선까지 내려왔던 코스피지수가 전 거래일보다 57.84포인트(1.95%) 상승한 2642.02에 마감했다. 코스닥 지수도 전장보다 22.62포인트(2.72%) 오른 855.65에 거래를 종료했다.

17일(현지 시간) 뉴욕증시는 네덜란드의 장비 업체 ASML의 '어닝 쇼크(시장기대치 큰 폭 하회)' 여파로 반도체



18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코스피가 전 거래일 대비 50.52포인트(1.95%) 오른 2634.70에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13.9원 내린 1372.9원으로, 코스닥지수는 22.62포인트(2.72%) 상승한 855.65에 거래를 마감했다. /뉴시스

등 기술주가 일제히 조정받았다. 1분기 주문 예약이 기대에 못 미친 ASML(-7.09%)을 중심으로 국내 반도체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엔비디아(-3.87%)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외에도 반도체주인 ARM(-11.99%)과 애플(-0.81%), 마이크로소프트(-0.66%) 등

대형기술주들이 모두 약세였다.

이에 따라 국내 증시도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이날 코스피지수는 상승 출발하면서 장 초반부터 2600선을 회복했다.

국내 대표 반도체주인 삼성전자(0.89%)와 SK하이닉스(2.01%)도 상승

기류를 탔다. 이외에도 코스피시장에서는 수출주인 현대차(-1.07%), 기아(-0.80%)를 제외하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최근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면서 미국 증시가 약세를 보이자 국내 증시도 반등 동력을 잃고 주저앉았다.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와 환율 급등, 금리인하 가능성 축소 등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투심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특히 16일에는 순매수세를 지속하던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서 대거 이탈하면서 60.80포인트(2.28%) 급락하기도 했다.

다만 중동 지역 긴장감이 다소 완화됐다는 점과 원·달러 환율의 안정세가 주요하게 작용했다. 최근 급등했던 환율은 외환당국이 구두개입을 결정하는 등 공동 대응하면서 이틀 새 30원 가까이 떨어진 1372.9원에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은 690억원, 외국인은 5803억원을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주도했다. 다만 개인은 6578억원

가량을 순매도했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전일 미 증시가 비록 약세를 보였지만, 달러 약세가 진행된 점을 반영하며 한국 증시는 되돌림이 유입됐다"며 "특히 외국인의 現·선물 순매수가 유입된 점이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외국인 선물매도세가 몰렸던 지난 16일에는 코스피 200 선물시장에서 외국인 매도 금액이 1조6000억원대를 넘기면서 올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었다. 외국인 투자자의 선물매도세가 1조6000억원을 넘긴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처음이다. 이날은 現·선물 시장에서 동반 순매수세를 보였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재보복을 연기하면서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됐다"며 "한국은행 총재가 IMF 춘계 회의에서 외환 시장 안정화를 재차 강조하면서 환율 급등세도 진정됐다"고 설명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부동산PF 부실 우려에도... 증권채, 거액 투자금 몰려

키움증권, 수요예측비 6배 웃돌아 교보·KB증권에도 1兆 넘는 자금 유입 리스크 확대에 안정적 투자처 찾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에 대한 우려에도 증권사들의 회사채 수요예측은 예상과 달리 거액의 투자금이 몰리면서 흥행에 성공했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키움증권은 지난 16일 진행한 1500억원 규모의 회사채 수요예측에 모집 금액의 6배를 웃도는 약 1조1500억원이 몰렸다. 구체적으로 2년물 700억원 모집에 5800억원, 3년물 800억원 모집에 4350억원의 주문이 들어왔다.

키움증권은 개별 민간채권 평가사 평균금리(민평 금리) 기준 ±30bp(1bp=0.01%포인트)의 금리를 제시해 2년물

은 -10bp, 3년물은 -15bp에 모집 물량을 채웠다. 수요예측 성공으로 키움증권은 당초 회사채 규모의 2배인 최대 3000억원까지 증액 발행도 검토하고 있다.

교보증권과 KB증권의 회사채 수요예측에도 모두 1조원이 넘는 자금이 유입됐다. 교보증권은 1500억원 증권채에 1조5000억원의 자금이 몰려 발행 규모를 3000억원으로 늘렸다.

KB증권은 2000억원 회사채에 1조3200억원의 주문이 접수됐다. 1년 6개월 500억원에 3600억원, 2년물 700억원에 3200억원, 3년물 800억원에 6400억원이 각각 유입됐다.

이 같은 증권채에 대한 수요는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이 안정적으로 평가받는 증권사 회사채에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KB증권의 신용등급

은 'AA+(안정적)'이며 키움증권과 교보증권의 신용등급은 모두 'AA-(안정적)' 수준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우량한 신용등급에 실적 전망도 나쁘지 않다"며 "시장의 여유자금이 적절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상황에서 그나마 안정적인 증권채에 유입된 것"이라며 "증권사들은 우량한 신용등급에 최근 실적 전망도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증권사들은 이번에 조달한 자금으로 만기가 돌아오는 기업어음(CP), 전자단기사채(전단채)를 차환해 만기와 금리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교보증권은 3000억원 모두를 4월에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 차환에 사용할 것이라고 공시했고, KB증권은 25일부터 6월7일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4500억원 규모의 C

메리츠증권

찾아가는 절세상담 'Tax365' 유튜브에 시리즈 전편 공개

메리츠증권이 해외주식 투자에 관심 많은 이른바 '서학개미'를 위한 맞춤형 절세전략을 공개했다.

메리츠증권은 유튜브 채널 'Meritz On'에 찾아가는 절세상담 'Tax365' 해외주식편을 업로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의 국내주식과채권, 파생상품, ETF편에 이어 모두 5편의 'Tax365' 시리즈 공개가 완료됐다.

'Tax365'는 다양한 투자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금융상품별 적합한 절세 전략을 소개하는 콘텐츠다.

/신하은 기자

KB증권

공모주 청약 성공법 소개

KB증권은 공모주 청약 시 알아두면 유용할 '공모주 청약 성공법'을 18일 소개했다.

최근 신규 상장한 종목 중에는 상장일 '따따상(공모가 대비 4배 상승)'까지 기록하는 종목도 있는 가운데 이번 달에는 예상 시가총액 3조원대의 기업 가치를 보이는 HD현대마린솔루션을 포함해 제일엠앤에스, 민테크 등 공모주 청약 일정이 연달아 있어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다.

KB증권에 따르면 우선 청약 신청 전에 공모주 투자설명서를 꼭 읽어보면서 핵심 투자 위험과 공모가액이 적정한지 파악하고 기업공개(IPO)를 결정한 이유, 회사의 재무 상태와 손익을 분석하는 등 청약할 종목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그 다음 해당 기업의 공모주 청약을 하고자 결정했다면, 주관 증권사의 계좌 개설을 완료해야 한다.

세 번째 방법은 공모주 청약 우대 조건을 확인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신하은 기자

은행, 홍콩 ELS 자율배상 '분주'... 증권사는 '조용'

증권사, 은행비 판매규모·민원 적어 가입자 "투자자 책임만 강조" 비판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관련해 은행권을 중심으로 자율배상이 속속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증권사들은 자율배상과 거리를 두고 개별 민원을 상대한다는 입장이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하나는 행·신한은행·우리은행 등이 홍콩 H지수 ELS 손실 고객에게 첫 배상금을 지급했다. 투자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은행들이 발 빠르게 자율배상에 나서는 모습이다.

하지만 증권업계에서는 자율배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는다.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신한투자·메리츠증권 등 대형 증권사 7곳은 홍콩 H지수 ELS 관련해 금감원의 현

장검사와 민원 조사를 받은 바 있지만 자율배상에 대한 계획은 전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증권사 관계자는 "은행의 불완전판매를 통해 홍콩 H지수 ELS에 투자한 고객들이 자율배상의 주요 대상"이라며 "증권사에서 홍콩 H지수 ELS 상품 가입하는 사람은 ELS에 상품 특성과 홍콩 H지수와 관련 상품 가입 시 투자 위험성을 아는 투자자가 많다"고 설명했다.

더군다나 자율배상에서 증권사가 멀어져 있는 이유는 증권사 전체 홍콩 H지수 ELS 판매 규모가 은행과 비교해 현저히 적다. 은행권 홍콩 H지수 ELS 판매 잔액이 15조4000억원(24만3000계좌)인 반면, 증권사의 홍콩 H지수 ELS 판매 잔액은 3조4000억원(15만3000계좌) 정도다. 게다가 금감원에 접수되는 홍콩 H지수 ELS 손실 관련 민원 수도

은행에 비해 증권사가 적다.

하지만 증권사를 통해 홍콩 H지수 ELS 가입자들의 입장은 다르다. 증권사를 통해 해당 상품을 구매한 가입자 A씨는 "증권사가 은행 뒤에 숨어서 자율배상은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며 "투자자의 책임만 강조하고 증권사발 판매금이 적다고 소외당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홍콩 H지수 ELS 가입자 B씨는 "은행처럼 자율 배상을 할 수 없는 이유 '이사회 승인이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증권사들을 통해 해당 상품에 가입한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증권사도 홍콩 H지수 ELS 판매 당시 증권사의 불완전판매 정황이 포착된다면 개별 배상을 논의해볼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은행처럼



홍콩H지수(항셱중국기업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들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피해를 호소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자율배상위원회'를 설치할 만한 판매 규모가 아니다"면서도 "민원 창구를 통해 사례를 종합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